

7/12/26

설교 제목: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바다에 처진 그물 비유

전하는 이: 김순배 목사

말씀: 마태복음 13 장 44 -58 절

세 가지 비유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새 것과 옛 것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고향에서 배척을 받으시다(막 6:1-6; 눅 4:16-30)

53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54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관해 네 종류의 땅에 떨어진 씨 비유, 가라지 비유, 겨자 씨 비유, 누룩 비유에 더하여 세 가지 비유를 짧게 더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비유, 값진 진주의 비유, 바다에 쳐진 그물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들을 통해 천국의 가치와 천국을 발견한 자들의 반응에 따른 각각의 종국, 제자된 자들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영적으로 무지한 무리들에게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와 극히 값진 진주에 비유해 말씀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44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 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천국의 가치를 강조한 것입니다.

천국은 비밀스럽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발견한 사람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려 합니다.

그만큼 큰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값진 진주에 비유한 말씀입니다.

45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46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한 상인이 좋은 진주를 구하러 다니다가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그 진주를 삽니다.

‘극히 값진 진주’는 예수님이 가져오신 하늘 나라, 천국을 가리킵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주 값진 것을 발견할 경우 그것을 소유하기 위해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발견한 것의 가치가 자신이 소유한 모든 것을 합친 것보다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동안 자신이 유익하다고 여겼던 것보다 더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빌 3:7)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뿐더러

(빌 3:8)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천국은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있습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 받아 영생을 얻는 것은 세상 어떤 부귀 영화 보다 귀중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손에 거머쥔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또한 예수님은 두 비유를 통해 천국에 대해 제자들이 보여야 할 반응을 강조하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산 사람같이,
또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고 가서 자신의 소유를 다팔아 그 진주를 산 상인과 같이,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얻기 위해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하십니다.

결정에는 댓가를 지불해야 합니다.

자기 희생이 요구됩니다.

그렇지만 천국은 그 모든 희생을 감수할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어서 결정에 따라 달라지는 그들의 종국을 바다에 처진 그물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47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48 그물에 가득하매 물 가로 끌어 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49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 내어

50 풀무 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바다’는 세상, ‘각종 물고기’는 세상 속의 인생들, ‘그물을 물 가로 끌어내는 날’은 세상 마지막 심판 날을 가리킵니다.

심판 날 인생 모두는 심판자이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자이신 하나님은 천사들을 시켜 그중에서 악인들을 갈라내 풀무 불에 던져 넣을 것이고, 그들은 풀무 불 속에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심판 날 하늘 법정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한 비유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비유에서 놀랄만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의인 중에서 분리되어 풀무 속에 던져질 악인이 천사들이 갈라내기 전까지 한 그물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의인들의 공동체, 교회 안에서 의인들과 함께 있던 자들이었습니다.

세상의 교회 안에는 의인과 악인이 공존하여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모두 의인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두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고 의인이 된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마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 그동안 가르치신 비유들을 깨달았는지를 확인하십니다.

그리고 천국의 비밀을 깨달은 제자들에게 그들의 사명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이라고 하시며, 그들을 곳간에서 새것과 옛것을 꺼내오는 집주인에 비유하십니다.

51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52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복음을 듣고 깨달은 제자들은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깨닫고 예수님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같이 다른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일도 해야 합니다.

옛것과 새것은 구약과 신약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하늘 나라의 서기관으로 사람들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감춰진 천국의 비밀을 비유로 계시하신 것처럼, 그의 제자들도 구약과 신약이라는 보고에 감춰진 진리를 예수님의 관점에서 해석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을 마치신 예수님이 고향으로 돌아가셔서 그곳 회당에서 가르치십니다.

그런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53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 곳을 떠나서

54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55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56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57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58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 고향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함께 하며 예수님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켜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집안 형편, 가족 관계 등에 대해서도 훤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고서도 예수님을 배척했으며, 메시아로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이런 일은 선지자에게 흔히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시며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다만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그곳에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은 자신들의 편견으로 인해, 받아 누릴 수 있었던 놀라운 은총과 복을 걷어 차고 말았던 것입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믿는 자들에게만 해당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꿈꾸는 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극히 값진 진주와 같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귀중한 가치를 지닙니다.

천국에는 영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세상 모든 것을 얻었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면 그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기에 천국의 진정한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 놓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집니다.

그렇지라도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결단이 요구됩니다.

자신이 세상에서 가진 모든 것들을 기꺼이 내려놓아야 합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과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사람이 자신들의 소유물을 다 팔아 그것을 산 것처럼 삶의 우선 순위를 주님께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 세상에서 유익하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 사도 바울과 같이 세상의 것들을 미련없이 포기해야 합니다.

믿음의 결단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할 것입니다.

지금은 의인과 악인이 함께 살아가지만, 심판 날, 믿음의 결단을 내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분을 믿고 따른 의인은 기쁨으로 천국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악인들은 풀무 속에 던져져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일단 심판이 내려지면 그 판결은 영원합니다

결과를 뒤집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악인이 돌이킬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직 은혜의 문이 열려 있는 바로 지금이 기회입니다.

지금 이 하나님께 돌아올 때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결단을 내려 세상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을 향해 자신이 구원받는데 그치지 말고,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되라고 하십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아 의인이라 칭함을 얻지 못한 자들에게 구약과 신약 성경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르게 가르치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우리 자신의 구원에만 머물러서는 안됩니다.

진리를 세상에 전하고 가르치는 하나님 나라의 서기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하십니다.

세상을 붙잡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십시오!

영원하지 않은 것에 인생을 걸지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받은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는 서기관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그 날, 마지막 심판의 날에 주님 앞에 기쁨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